

당신을 위한 * 당신과 함께 31대 총여학생회



수신자 각 언론사 기자

(경유)

제 목 2018년 제 1회 여학생총회 '여학생회가 쓰아올릴 작은 공' 취재의 건

1. 항상 학생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11월 21일 늦은 7시 L101에서 '제 1회 동국대학교 여학생총회 - 여학생회가 쓰아올릴 작은 공'이 열립니다.
3. 이에 언론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4. 여학생총회 현장에는 여성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프레스 또한 여성만 가능합니다.
 - 4.1 단, 취재 인력상 불가피한 경우 프레스증을 걸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4.2. 현장 사진 촬영 시 클로즈업 및 신원이 드러나는 사진의 촬영 자체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별첨 1. 여학생총회 보도자료

별첨 2. 여학생총회 공고

별첨 3. 여학생총회 입장문

문의 : '여학생총회가 쓰아올릴 작은 공' 의장 윤원정 010-9570-4791

동 국 대 학 교 31대 총여학생회장

시행 31대 총여학생회 (2018.06.12.)
우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학생회관 1층 총여학생회실
전화 010-9570-4791 전송 dgumoving@gmail.com

/전체공개

동국대학교 제 1회 여학생총회

‘여학생총회가 쏘아올릴 작은 공’ 보도자료

<여학생 총회가 쏘아올릴 작은 공> 개최

.....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발신 : 동국대학교 여학생총회 ‘여학생총회가 쏘아올릴 작은 공’ 성사단

제목 : 제 1회 여학생총회 ‘여학생총회가 쏘아올릴 작은 공’ 개최

장소 : L101(경영관 1층)

문의 : 총여학생회장 윤원정 010-9570-4791

1. 항상 공정한 보도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 총여학생회는 11월 21일 저녁 7시 동국대학교 경영관 L 101에서 제 1회 동국대학교 여학생 총회 ‘여학생총회가 쏘아올릴 작은 공’을 개최합니다.

3. 지난 11월 6일,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인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찬성’ 서명 약 500여개가 총대의원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총대의원회는 긴급하게 대의원회를 열어 해당 서명은 신원확인의 문제가 있어 오프라인 서명을 재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서를 개시했습니다.

4. 이어 11월 14일 500명 이상의 오프라인 서명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대의원회는 서명 제출 이후 하루만에 총투표를 결정, 어떠한 선거 관련 루미팅과 회칙 점검도 없이 ‘총여학생회 폐지 찬반 투표’를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선거 세칙과 반드시 필요한 회의 체제 및 논의 테이블들이 무시당했습니다. 총투표를 결정한 총대의원회는 발의 전 총여학생회와 더 많은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니 3차례 이상의 토론회를 열겠다는 말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총대의원회 주관 토론회로 논의가 충분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총투표 발의의 근거인 서명은 애초 약속했던 바와 달리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투표 결정이 난지 평일기준 하루만에 동국대 만삼천 학우들은 총여학생회 폐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한 총여학생회의 선전물이 끊임없이 훼손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총여학생회는 여학생 총회를 통해 총여학생회의 회칙을 개정하고 총여학생회의 존립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개최성사는 200명 이상의 여학생회원으로, 우리 학교 내의 성평등과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5. 또한 23일을 시작으로 총여학생회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발전과 존속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6. 여학생 총회의 의장은 총여학생회장이며, 성원의 자격은 현재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그 기준은 재학생 등록 명부를 따릅니다. 해당 총회는 총여학생회 회칙 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와 본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학생활동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항할 권리를 갖는다.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